

전남도청 여자 펜싱 대통령배 '금빛 찌르기'

에베 단체전서 계룡시청 꺾고 우승
해남군청은 남자 일반부서 동메달
전남도청 카누팀은 1·동 2 획득도

단체전 우승을 일궈낸 멤버는 유진실·김향은·박소형·유단우. 이들은 대회 8강전에서 강원도청을 43-38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4강전에서는 경기도청을 만나 32-31 짜릿한 한 점차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전남 펜싱은 남일부에서도 선전했다.

해남군청(김승재·김기현·신현석·박경호)은 남자 일반부 에베 단체전 준결승에서 익산시청에 37-45로 아쉽게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한편, 전남도청 카누팀은 제16회 백마강배 전국 카누대회에 출전해 임성화·김소현이 k2 200m 은메달, 이진솔 이민아까지 합세해 4명이 함께 출전한 k4 200m에서 동메달, 이민아가 k1 5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통령배 전국남녀펜싱대회 여일부 에베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전남도청 펜싱팀.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도청 펜싱팀이 국내 최고 권위의 펜싱대회인 대통령배에서 정상에 차지했다.

전남도청 펜싱팀은 코로나19 때문에 올 시즌 처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성적을 거둬 견제를 과시했다.

18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남도청 펜싱팀은 최근 강원도 홍천에서 막 내린 제60회 대통령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여일부 에베 단체전 결승에서 계룡시청을 40-32로 완파했다.

'양궁 차세대 스타' 김민서 금1·은2·동3

광주여대·조선대 남녀 단체전 3위
광주여대 총장기 양궁대회 성료

이진용(조선대)과 팀을 이뤄 출전한 시도대학 혼성전 결승에 진출한 김민서는 남유빈(배재대)·이나영(목원대)조에 패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여대는 정시우, 이세현, 박나운, 김민서가 팀을 이룬 단체전 준결승전에서 계명대에 세트 스코어 2-6으로 패해 3위에 올랐다.

한편, 이세현(광주여대)도 거리별 경기 50m에서 329점으로 강수빈(순천대·336점), 박소민(한체대·334점)에 동메달을 보냈고, 조선대는 남자 대학부 단체전에서 서원대에 세트 스코어 3-5로 패해 3위에 머물렀다.

김민서는 60m경기에서는 342점을 기록하며 345점을 쓴 박연경(계명대)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또 70m에서는 337점으로 3위에 올랐다. 김민서는 올림픽라운드로 치러진 개인전 준결승전에서 이다희(한체대)에게 세트 스코어 4대6으로 패해 아쉽게 동메달에 그쳤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 14일 광주여대 잔디구장에서 열린 '광주여대 총장기 제23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 단체전 시상식에서 수상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여대 제공>

김민서(광주여대)가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치러진 마지막 실전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따냈다.

김민서는 최근 광주여대 잔디구장에서 열린 '광주여대 총장기 제23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 거리별 경기 30m에서 357점을 쏘 이나영(목원대)과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김민서는 60m경기에서는 342점을 기록하며 345점을 쓴 박연경(계명대)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또 70m에서는 337점으로 3위에 올랐다.

김민서는 올림픽라운드로 치러진 개인전 준결승전에서 이다희(한체대)에게 세트 스코어 4대6으로 패해 아쉽게 동메달에 그쳤다.



김시우

'6000만 달러 돈 잔치' 주인공은?

PGA 플레이오프 21일 개막...우승 상금 1500만 달러

임성재·안병훈·강성훈·김시우 도전

6000만달러(약 710억원)라는 어마어마한 총상금이 걸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플레이오프 시즌이 돌아왔다.

PGA투어는 오는 21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던의 TPC 보스턴(파71)에서 플레이오프 1차전인 노던 트러스트(총상금 950만 달러)를 치른다.

PGA투어 플레이오프는 노던 트러스트, BMW 챔피언십, 그리고 투어챔피언십 등 3개 대회다.

플레이오프 총상금은 무려 6000만 달러에 이르고, 우승 상금은 1500만 달러(약 178억원)라는 거액이다. 한마디로 '돈 잔치' 나 들름없다.

1차전 노던 트러스트에는 125명이 출전하지만 2차전 BMW 챔피언십은 70명, 최종전 투어챔피언십에는 고작 30명만 초대받는다.

노던 트러스트에 출전하는 125명의 처지는 페덱스컵 랭킹에 따라 다르다.

상위권 선수들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위치에서 최종전 투어챔피언십을 맞으려면 1차전부터 랭킹 포인트 대량 획득을 노린다.

2차전 출전권 걱정 없이 플레이오프 최종 우승을 바라보는 상위 랭커들은 노던 트러스트에서는 우승을

겨냥한 공격적인 플레이를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페덱스컵 랭킹 5위로 플레이오프에 나서는 임성재 역시 플레이오프 우승까지 노려볼 위치다. 정규 시즌 마지막 대회였던 윈덤 챔피언십에서 살아남은 샷 감각을 이어가느냐가 열쇠다.

31위로 플레이오프를 시작하는 안병훈은 투어 챔피언십까지 살아남으려면 1차전 성적이 아주 중요하다. 61위 강성훈도 페덱스컵 랭킹을 끌어올리는 게 과제다. 82위 김시우는 70위 이내로 진입하려면 윈덤 챔피언십에서 펼쳤던 우승 경쟁을 다시 한번 보여야 한다. 110위 이경훈은 1차전에서 우승 아니면 2차전 진출이 어렵기에 배수진을 쳤다.

PGA투어 닷컴은 저스틴 토머스, 폴린 모리카와, 웨브 심프스, 브라이언 디샬보, 더스틴 존슨(이상 미국) 등을 노던 트러스트의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다.

작년에 이 대회에서 우승한 패트릭 리드(미국)와 플레이오프 2년 연속 정상에 도전하는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세계랭킹 1위 온 램(스페인)도 빼놓을 수 없다.

PGA투어 통산 최다승 기록(83승)에 1승을 남긴 타이거 우즈(미국)는 우승도 우승이지만 47위인 페덱스컵 랭킹을 30위 이내로 올리는 게 당면 과제다.

/연합뉴스



임성재

'배구 여제' 김연경 국제연맹 '이주의 선수'

국내 복귀전을 앞둔 '배구 여제' 김연경(흥국생명)이 국제배구연맹(FIVB) '이주의 선수'로 선정됐다.

FIVB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연경을 이주의 선수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FIVB는 "김연경은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오랜 기간 활약했다"며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선 (4위 팀 선수로는 이례적으로) 올림픽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고 설명했다.

이이 일본과 유럽, 중국 무대 등에서 활약했던 김연경의 이력을 소개한 뒤 "그는 올 시즌 친정팀인 흥국생명에 입단해 한국으로 돌아갔다"며 "친정팀으로 돌아간 김연경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FIVB는 김연경의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채널을 소개하며 김연경이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모습도 조명했다.

FIVB는 남녀 선수를 통합해 매주 '이주의 선수'를 선정하고 있다.

김연경은 올 시즌을 앞두고 흥국생명과 계약하면서 11년 만에 국내 무대로 돌아왔다. 현 김연경은 한국배구연맹(KOVO) 컵대회 출전을 목표로 컨디션에 끌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NBA PO 1차전서 57점 넣고도

유타 가드 미첼 "내 실수가 컸다"

LA 클리퍼스에 역전패 '자책'

미국프로농구(NBA) 유타 재즈의 도너번 미첼이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무려 57점을 넣고도 팀 패배에 고개를 숙였다.

유타는 1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필드 하우스에서 열린 2019-2020 NBA 플레이오프 서부 콘퍼런스 1회전(7전 4승제) 덴버 너기츠와 1차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125-135로 졌다.

이 경기에서 유타의 가드 미첼은 혼자 57점을 퍼붓는 맹활약을 펼쳤다.

그러나 팀의 연장전 분패 이후 인터뷰에서 "팀의 리더이자 그때는 포인트 가드 역할을 맡은 상황에서 실수가 나왔다"며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했다"고 자책했다.

그가 말한 실수는 유타가 109-105로 4점을 앞선 4쿼터 종료 1분 46초 전이었다.

유타는 이때 공격권까지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격을 성공하면 6~7점 차로 달아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었다.

설령 유타가 공격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흘려보내면 덴버로서는 4점 뒤진 상황에서 남은 시간이 1분 20여초밖에 되지 않는 위기였다.

그러나 미첼이 공을 잡고 공격 코트로 넘어가는 순간 심판의 휘슬이 울렸다. 공격 코트로 8초 이내에 넘어가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앞서 진행된 덴버의 공격이 실패한 뒤 리바운드 다툼 과정에서 공이 라인 밖으로 나갔고, 이때 2초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미첼은 좀 더 빨리 공격 코트로 넘어가야 했지만 너무 천천히 이동하다가 8초 위반이 지적됐다.

기사희생한 덴버는 이어진 공격에서 곧바로 자말 머리가 3점포를 터뜨리며 4쿼터 종료 1분 39초 전에 1점 차로 바짝 따라붙었다.

기세가 오른 덴버는 머리가 다시 3점포를 쏘아 4쿼터 끝까지 1분 25초 전에 111-111, 동점을 만들고 기어이 승부를 연장으로 넘겼다.

이날 미첼의 57득점은 2000년 4월 칼 말론이 세운 팀 플레이오프 개인 최다 득점 기록(50점)을 뛰어넘었고, NBA 전체로도 마이클 조던의 63점, 엘진 베일러의 61점에 이은 플레이오프 한 경기 최다 득점 3위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다란 약에서 구하소서
- 2관 오케이 마담
- 3관 강철비2: 정상회담
박사크3: 엘리먼트스터 대소동
- 4관 다란 약에서 구하소서
- 5관 다란 약에서 구하소서
- 6관 오케이 마담
- 9관 나의 소녀시대, 더 프린세스 : 도둑맞은 공주
- 7관 씨네카를 오케이 마담
- 8관 씨네카를 시크릿 기든, 반도, 반교: 디텐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FOCUS 5
이재람 신작: 판소리극 <노인과 바다>
2020.08.21.(금)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53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250시리즈 - NO.5
2020. 8. 26.(수)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Prayer, 달의 춤
2020. 8. 27.(목)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